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24	08. 31	09. 07
대 표 기 도	정환영 형제	이윤선 성도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정환영 형제	이윤선 성도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축하 - 한나 Mäder(초등학교 입학)
4. 영과 육을 충전하는 8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5. 월요 성경공부와 금요기도회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6.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류현석 형제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십 일 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8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486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예준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겔 8 : 5 - 13(구p1159) (Hesekiel 8:5-13)	이예준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포기해야 할 습관들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아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내면 세계를 새롭게 정비하라

김종래의 “CEO 칭기스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나는 배운 게 없어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적은 밖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 나 자신을 정복하자. 나는 칭기스칸이 됐다.” 칭기스칸은 역사상 가장 많은 지역을 정복했지만 가장 큰 적은 자신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면세계의 영적 질서가 잡히고 내면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외면지향적인 삶을 정지해야 합니다. 관성이 되어버린 삶,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일상에 ‘아니오!’를 외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Coram Deo 정신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존재와 삶의 목적은 나 혼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확립하고 영적 질서가 잡히고 난 뒤, 외부로 향하는 삶을 살려볼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속사람에 대한 관심, 가정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해 교회와 지역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영역확대를 위한 올바른 기술입니다. 모든 위대한 혁명은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삼중 혁명의 영성 /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담임)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백성들처럼 몰래 행하는 우상숭배는 무엇인가요?
2. SNS는 습관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